교환학생 체험작문

교환학생 1년간을 되돌아보며.

이원정

(한국 계명대학교)

저는 2018년4월에 한국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써 오챠노미즈 여자 대학교에 왔습니다.1년은 순식간에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지낸 1년은 저의 인생에서 매우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기 한참 전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에 동경을 품고있었습니다.일본에 교환학생으로서 오기 전, 여행으로 온 도쿄는 저에게 있어서 마치 천국같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좋아졌기에 계속 도쿄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면 도쿄에 취직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여행과 직접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며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적어도 취직하기 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생활해본 후 진로를 정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결심하고 2018년 4월에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에 온 후 처음은 보험이나 통장 만들기 등의 서류작성부터 기숙사 방 정리,짐 정리, 쓰레기 버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가 너무 힘이 들어 울고 싶어 지는 날도 많았습니다.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가 보고싶고 외로워 혼자 일본에 온 것을 후회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정리도 마무리되고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대학수업도 매우 재미있고 한국학교에서는 배운 적 없는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전 한국에서 일본어문학과입니다.처음에는 한국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챠노미즈 여자대학교에서 일본어 문학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그러나 한국대학교의 수업과는 전혀 다른 수업 예를 들어 한학기에 한작가의 한가지 문학책을 읽어가는 수업은 상당히 신선하고 즐거운 수업이 였습니다.유학생 대상 수업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 이였습니다.

저의 일본생활에서 대학수업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취미생활입니다.저는 일본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을 좋아해 일본어를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일본어와 일본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그런 저에게 이케부쿠로와 가까운 대학과 기숙사는 상당히 매력적 이였습니다.대부분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벤트는 도쿄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신주쿠나 시부야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약1년간 일본에서 보낸 시간은 무척이나 유익하고 즐거운 매일 이였습니다.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외로운 감정도 많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그 힘든 일과 외로운 감정들도 지금은 좋은 경험,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한유학생으로써 보낸 1년간의 경험으로 저는 일본에서 취직한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다시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저의 교환유학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 1년간 감사했습니다.